

## 가족들의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

(정신 분열병의 치료)

한사람의 정신 분열병 환자가 발병에서 치료 후 가정에 복귀하기까지, 혹은 ‘가족들의 목제’에 의해 만성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반영구적인 격리의 수순을 밟을 때까지 그 과정은 참으로 눈물겨운 투병의 역정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병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초기 급성 증상의 시기에 환자는 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짐이 된다. 게다가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 상태가 쉽사리 안정기에 들어가지 못 하거나 끝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될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정의 순간이 왔음을 의미한다.

흔히 자식이 정신 분열병 환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은 부정, 회피, 자책감 등이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은 치료자를 난처하게 하고 건강한 치료 관계를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처음 진료할 때는 부모가 함께 환자를 데리고 왔다가 며칠 뒤 부모 중 한 사람이 슬쩍 찾아와서 “유전병이 아니겠느냐?”, “아내의 집안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애 엄마 때문에 자식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겠느냐?”라며 은근히 그 문제의 본질을 자신의 배우자와 그 집안에 돌리려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지금보다 훨씬 경험이 적었던 젊은 의사 시절에는 교과서에서 달달 외우고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사람이 환자일 경우’, ‘한쪽 집안에 정신 분열병 환자가 있을 경우’ 등 몇 가지를 예시해 가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원인에 관한 몇 가지 설(說)은 있지만, 그 원인은 모른다. 옛날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결국은 모를 것이다. 정신병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간간히 나오니 무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만 한다. 이럴 때 “어떻게 정신과 전문의가 모른다고만 하느냐?”라며 역정을 내기도 하고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보호자도 간혹 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에도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보호자는 자식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마구 분풀이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남에게 실컷 욕이라도 얻어먹었으면 하는 자학적(自虐的) 고뇌에 빠지기 때문이다. 만약 “유전이 어찌고...”라고 운이라도 떤다면 그날 밤 그 집안은 서로를 비난하느라고 부모 간에 큰

난리가 나기 십상이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보통 보호자들은 치료자가 굳이 유전성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경우에도 대개 자신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코 유전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곳에 있지 않다. 많은 연구는 정신 분열병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집안에 많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설령 경제적 수준이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만성 정신병 환자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가정의 경제력이 하위 그룹으로 전락 하고야 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병원의 치료비도 치료비려니와 과학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 의학적 (para-medical) 요법을 기웃거리며 투자하는 치료비의 수준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귀신의 장난, 혹은 알 수 없는 혼백의 무자비한 힘에 대한 이유 없는 두려움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도 수 백 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며 ‘내림굿’이나 ‘눌림 굿’을 감행해 버린다.

물론 먼 미래에는 현재 쓰이고 있는 정신의학적 치료법들조차도 ‘참으로 영똥한 치료법’으로 밝혀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병원에서 환자에게 행해지는 치료법이 최선의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한 가지, 자식의 병이 급성기를 막 벗어나 일정 기간 필요한 유지 요법의 시기에 도달 하였을 때, 환자 본인보다도 “내 자식이 정신병 약을 먹는다”는 사실에 자책감 혹은 수치심을 느끼고 이것을 견디지 못 하는 극성 부모가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은연중 자식에게 “네가 정신병 약을 먹어야만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불명예”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또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의 사이에 개입하여 “언제까지나 약을 먹일 것이냐?”라며 원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의 증상을 자꾸 경하거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사로 하여금 치료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 버릴 것을 은근히 강요하는 보호자들도 있다.

꼭 지적해야 할 것은 보호자들의 그런 행동들이 환자의 치료에 지속적으로 방해 인자가 된다는 점이다. 보호자들은 치료자의 조언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가족을 걱정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기분에만 젖어서 자식을 더욱 나쁜 병마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거나 않은지 꼭 돌아볼 일이다.